



층층나무 / *Cornus controversa* Hemsl.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층층나무속

과국명	층층나무과
과명	Corn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층층나무과 낙엽 활엽 교목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라며, 일본에도 분포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일본; 전국 분포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교목.</p> <p>크기 : 높이 20m.</p> <p>꽃색 : 백색</p> <p>개화기 : 5월,6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이며 급한 점첨두, 원저이다. 겉면은 초록색인데, 어릴 때는 갈라진 털이 조금 나 있다. 뒷면은 하얀색이고 잔털이 뺨뺨하게 나 있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. 옆으로 뻗은 맥은 5~8쌍이고 잎자루에는 붉은빛이 돌며 털이 점점 없어진다.</p> <p>꽃은 5월에 하얀색으로 피고 새가지 끝의 편평꽃차례에 달린다. 꽃차례에는 털이 있거나 없다. 꽃잎은 넓은 창 모양이고 꽃받침통과 마찬가지로 겉에 털이 촘촘하게 나 있다. 꽃가루주머니는 정자() 모양으로 달린다. 꽃잎과 수술은 각각 4개씩이다.</p> <p>열매는 핵과고 둥글며 검은색이다. 8월 말~10월 초에 익는다.</p> <p>가지는 계단 모양으로 돌려나기하고 층을 이루어 수평으로 퍼지며 붉은빛이 돈다. 어린 줄기와 가지는 붉은빛의 윤기가 나고 꺾질눈이 퍼져 있다.</p> <p>땅이 깊고 기름지며 습기가 있는 곳이 좋다. 또한, 진흙이 비교적 적게 섞인 보드라운 흙이 생장에 적합하다. 음지와 양지 모두에서 잘 자란다. 추위와 대기오염에는 강하지만 바닷바람에 약해서 바닷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. 씨앗을 뿌리거나 꺾꽂이를 하여 번식시킨다. 층층나무가 자라는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성남리의 성황림은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되어 있다. 층으로 이루어진 우산처럼 생긴 나무의 생김새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목탑처럼 보인다.</p>